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5

2006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에스겔 · 다니엘 · 호세아

디도서 · 빌레몬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교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5

2006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에스겔 · 다니엘 · 호세아
 디도서 · 빌레몬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 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릴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 ③ 2006년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하소서.
- ④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 ⑥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⑦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자존심을 버리고 회개하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눅 7:19).

질문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보다 더 악한 우리들은 이 일을 더욱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사단의 공격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벧전 5:8).

물론 사람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대적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사람도 사단의 공격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고후 11:14).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회개해야 합니다(마 4:17).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온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마 16:24).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였으니”(행 17:30).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의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반응을 즉시 보여야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5:8)

2006년 5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매일 성경묵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본 장은 성전의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으로 보인 성전에 대해 묘사한 후에 미래의 예배의 신성한 기준을 묘사하면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현재의 예배 의식을 재평가해 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무를 설명하고, 다음 장에서 성전 제사장을 위한 땅의 할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장은 성전 출입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전반부(1-8절), 레위인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중반부(9-11절),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 후반부(15-31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본 장은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매우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주님을 위해 헌신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종교의 전반을 책임져야 했으며, 신앙 교육을 전담해야 했습니다. 다른 여타의 일에 관여할 수도, 또 관여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제사와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의 종교 제도를 유지하는 일에만 매달려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의 기본자세는 그러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외형적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의 삶 자체가 주님 나라를 위한 밑거름으로 온전히 드러져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벧전 2:9). 10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상황이 어렵다 하여 우상을 좇아 주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주님을 진실로 섬기는 성도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진다 해도 세상을 향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겔 44:15)

기도 제목 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전(前) 장이 주로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고 있다면, 본 장은 주님에 대한 태도를 축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이전 장에서 밝히고 있는 레위인과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의 성결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성한 목적의 맥락 안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의 내용이 주로 성전의 척량과 성전 내부에 대한 식양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면, 본 장은 성전 외부인 땅에 초점을 돌림으로써 주님의 통치 영역이 성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全)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누면 성별된 구역에 대한 언급(1-8절), 치리자에 대한 권면(9-12절), 왕에게 바칠 예물(13-17절), 절기들에 관한 규례(18-2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왕은 주님의 대리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백성의 한 사람입니다. 이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는 권위가 있지만, 주님을 향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평등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왕 역시 다른 백성들과 동일하게 속죄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어떤 지위와 신분에도 달한다고 해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교만하여 자신의 분수를 잃지 말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갓출찌니라”(겔 45:17)

기도 제목 ①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왕이 준수해야 할 규례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미래적인 메시아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안식일 준수에 대한 규례를 밝히고 있는 것은 자신이 모세 언약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래적인 메시아 왕국을 현재적인 관점, 즉 모세 언약 아래 있는 상황에서 전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비단 안식일 규례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절기나 제사 등의 언급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장에 나와 있는 여러 규례들은 미래적이며 예언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이 규례들을 좀 더 자세히 나누면, 안식일과 월삭에 대한 규례(1-8절), 성전 출입 규례(9,10절), 기타 제사 규례(11-15절), 왕의 기업에 관한 규례(16-18절), 소제물에 관한 규례(19-24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장에서 예배자들의 통행에 대한 제한은 성전 안에서의 충돌과 혼잡함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의미도 있으나, 적극적으로는 예배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예배해야 하는가를 보여 줍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외적인 자세에서도 경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주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항상 주님과 더불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분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군중 속에 묻혀 대충 예배드리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은총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하십시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겔 46:3)

기도 제목 ① 이 세상 주관자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청지기과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음의 바다인 사해까지 흘러가서 생물들을 소생케 하고 척박한 땅이 옥토로 변하게 만드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로서 죽을 수 밖에 없는 자들에게 영생을 줄 것임을 예표적으로 보여 주는 환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에 대한 환상을 묘사하고 있는 본 장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전반부(1-12절),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묘사하고 있는 후반부(13-23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명수 강가의 환상은 주님의 나라가 하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통해 점점 확장되어 궁극적으로 완성됨을 보여 줍니다(계 22:1).

본 장은 진펄과 개펄은 소생되지 못하고 여전히 소금 땅이 된다는 점을 교훈합니다.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다시 살지만, 사해에 우기가 닥치면 바닷물이 넘쳐 진펄의 낮은 지역을 덮습니다. 그때 물은 곧 증발하고, 소금 기운만이 남아 생물이 살 수 없게 됩니다. 이곳은 생명수 강물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생물이 회복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완악한 자들은 결국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패망시키시며, 영벌에 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진펄과 개펄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겔 47:9)

기도 제목 ① 생수의 근원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소서. ② 단기선 교가 주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주님의 공동체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론적 회복은 물질적이거나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이스라엘 전 공동체의 기업이며 추구해야 할 대상으로 자리 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주님의 임재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장은 일곱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부분(1-7절), 주님께 속한 땅의 분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부분(8-22절), 나머지 다섯 지파의 땅 분배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23-29절), 성읍의 출입구에 대한 할당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30-35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라고 하는 뜻의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로 본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는 에스겔 선지자의 전 사역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본서의 총괄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상 중에 목격한 여호와와 영광의 떠나심과 다시 돌아오심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그 새 성전에 거하시면서 다시는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으로 해석됩니다. 이 말은 여호와와 그의 처소를 지칭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새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영원한 임재라는 보다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은혜와 사랑의 자리에 계셔서 성도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역사의 종말에 의와 공평의 심판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일만 팔천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라 하리라”(겔 48:35)

기도 제목 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게 하소서. ② 1인 1명 전도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주님께서서는 유다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정복당하도록 하심으로써 심판의 비참함이 어떠한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유다 백성들 중에 신실한 자를 준비하셔서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이방인들이 알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의 환관장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를 선택하여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1-7절).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바벨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식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열흘 동안의 시험으로 주님의 능력이 위대하심을 보여 줍니다(8-16절). 또한 주님께서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지식과 명철을 주셨고, 더욱이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능력을 주셨습니다(17-21절).

이러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태도는 물질이 지배하는 오늘날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순간적인 쾌락이 만족을 줄지라도 사람의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질에 빠져서는 안 되며, 오직 영원한 구원과 참된 기쁨을 제공하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돈은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사랑할 때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딤후 6:10). 세상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한번 뜻을 정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향한 뜻을 굽히지 마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단 1:8)

기도 제목 ① 예수님만 따를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기이한 꿈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재위 2년에 이상한 꿈을 꾸고, 그 꿈의 의미는커녕 그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큰 번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벨론이나 모든 속국에 거하는 술사와 점쟁이들이 동원되어 그 꿈을 알아내려 했지만 헛수고였고, 도리어 느부갓네살 왕의 노를 충돌질하여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1-13절). 이에 다니엘은 명철한 말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원하는 기한 내로 꿈을 해석할 것을 약속합니다(14-16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합니다(17-24절). 그리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꿈을 낱알이 해석해 줍니다(31-45절).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을 알게 한 다니엘에게 절하면서 주님의 크나큰 능력을 찬양하게 됩니다(46-49절).

다니엘이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얻은 해몽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한 인간으로서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뜻에는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나아가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게 됨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결코 영원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기 바랍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시라”(단 2:28)

기도 제목 ① 예수님께서 내 일생을 온전히 통치하소서. ② 성찬식과 가족연합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정들에 십자가 위해 굳게 서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꿈 해몽을 전해 듣고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라고 여호와 주님을 높이 찬양하였습니다(2:46-49).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교만해져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금 신상을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세우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권세를 드높이고 자기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 이같은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 건립은, 당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경건한 유대 백성에게는 크나큰 신앙의 도전이요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실로 그들은 오직 한 분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들로서, 금 신상 숭배나 여호와 신앙 사수라는 문제를 놓고 생사가 달린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6,11절). 경건한 신앙을 소유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위기는 다가왔습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을 향하여 느부갓네살왕은 징벌을 유보하면서 서까지 끈질긴 회유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라는 매우 단호한 말로써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16절). 그들은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요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와 사랑을 한량없이 베푸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극렬히 타는 풀무 불에서 능히 구원해 내실 것을 믿었습니다(17절). 그러기에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찌라도”라는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며 죽음의 불길을 의연히 맞이하였습니다(18절). 진실로 어떤 환란이 와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죽든지 살든지 오직 십자가만을 의뢰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찌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단 3:18)

기도 제목 ①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질 때에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매일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백성들에게 반포한 조서로, 왕이 험악한 정신질환에서 회복된 이후에 주님의 주권을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고백의 형식으로 기록한 부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 때는 태평과 안락의 때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역시 이전보다 더욱 교만해졌습니다(3장). 자신의 권세가 영원한 것처럼 자만한 때였습니다. 이 같은 때에, 주님은 한 꿈(큰 나무의 꿈, 10-17절)을 통해 느부갓네살에게 강력히 경고하셨습니다. 큰 나무의 꿈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주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도 조종받거나 간섭받지 아니하시는 절대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은 ‘자기의 뜻대로’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를 꺾었습니다(13,14, 23-25절). 하지만 주님께서 또한 ‘자기의 뜻대로’ 그 뿌리채 완전히 뽑아내지는 아니하셨습니다(15,26절). 그 뿌리를 남겨두사,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회복하여 주님의 절대주권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 과연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 위에 지극히 높은 주님이 계심을 깨닫게 되었고(1-3절), 그리하여 여호와 주님을 찬양하기에 이르렀습니다(34-37절).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그가 주님의 절대 주권을 겸허하게 인정합니다. 왕은 고백하기를,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35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여호와 주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에 대해 인간은 창조주 주님을 전적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만 ‘아멘’ 할 따름이요 찬송할 따름입니다(고후 1:19).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단 4:37)

기도 제목 ①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만 섬기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한 모든 새가족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벨사살은 매우 방탕하고 우상 숭배에 심취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선왕(先王)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탈할 당시 빼앗아왔던(단 1:1-3) 각종 기명들을 가지고 방탕한 향연에 사용함으로써, 주님의 거룩을 심히 모독하고 그분의 영광을 짓밟아버렸습니다. 육체적 방탕에 깊이 빠져 있던 벨사살은 성전의 기물을 함부로 다루고 말았습니다(1-4절).

주님은 당신의 거룩한 성전 기물을 가지고 쾌락의 술잔으로 사용함으로써 당신을 심히 모독한 벨사살의 행위를 그냥 간과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서는 바벨론 궁중의 분벽(국가의 기념할 만한 사건이나 혹은 왕의 치적 등을 기록해 둔 벽이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에다가 사람의 손가락을 나타내서 방탕한 향연에 젖어 있던 벨사살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5절). 한편 주님께서 제시하셨던 심판의 메시지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25절). 이 말은 ‘셈하고 셈하여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눈다’는 뜻이었습니다(26-28절).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교만한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좇아, 나라와 제국의 흥망 성쇠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이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친히 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권력과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그것을 의뢰하고 좇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시는 주님만을 의뢰하고 십자가만 좇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 삶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왕국 분벽의 글씨는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 진리를 보여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단 5:21)

기도 제목 ① 사람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사람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②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총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다니엘은 포로 된 백성의 비천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나라의 고위 관직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같은 탁월한 능력과 총명으로 인해 다니엘은 시기를 당하게 됩니다. 곧 바벨론 도의 총리와 방백들은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와 틈을 엿보았습니다(1-4절).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니엘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허물과 그릇됨을 찾을 수 없었던 고로, 마침내 다니엘의 신앙을 문제 삼기로 했습니다(5절). 그들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모한 다음에, 다리오 왕의 인간적인 허영심과 배대와 바사의 규례를 이용하여 한 금령(禁令)을 제정토록 공작했습니다. 그것은 향후 30일 동안에는 다리오 왕 이외의 그 어떤 대상에게도 일절 기도하거나 간구함으로써 그것을 섬길 수 없다는 법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법령을 교묘하게 위장하여,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어인이 찍힌 조서를 전국에 반포하도록 하였습니다(7-9절). 이때에 대적들은 '승리했다'고 장담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자신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사자 굴 속으로 떨어지든지 이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위기로 역경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오직 주님만을 의뢰했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반포된 경위를 알고도, 예전처럼 여호와와의 성전이 있던 곳,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루 세 번씩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10절).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여호와 신앙 때문에' 사자굴을 선택했습니다. 정녕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더라”(단 6:23)

기도 제목 ① 기쁜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교회에 속한 재단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환상 중에 다니엘은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넷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온 짐승은 사자 같았고(4절),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았으며(5절),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았습니다(6절).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짐승인데 어디에 비할 데 없을 만큼 무섭고 강하게 생긴 것이었습니다(7,8절). 환상속에 나타난 네 짐승은 주님이 주도하시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게 될 강력한 제국들(바벨론, 메대, 바사, 헬라, 로마 제국등으로 보는 견해가 많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실한 교회를 박해할 엄청난 세력의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과 완성될 주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15-28절). 한때는 세계를 주름잡던 대 제국들이 지금은 역사의 뒤편으로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세운 어느 나라도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곧 모두 사라질 안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의 보좌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스스로 계시는 자, 출 3:14)가 좌정해 계시는데, 그분은 세상 모든 나라를 파하신 후에 당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인자 같은 이' (메시아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는 자기에게 속한바 모든 성도(신부된 교회)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날 성도들이 사모하고 소망을 두어야 할 나라는 바로 이 '주님 나라'입니다(계 5장). 정녕 주님께서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 할 것없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롬 11:36).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단 7:14)

기도 제목 ①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다니엘이 본 장에서 전해 받은 이상은 매우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활발하던 '수양'이 갑작스럽게 '수염소'에게 패배당하고, 그 '수염소'도 결국 뿔이 꺾이고 마는 멸망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1-8절). 여기서 확인되듯,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위대하고 막강한 세력일지라도 결코 그 권력을 영원히 지속시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만 믿고 교만하여 날뛰는 인생은 결코 그 생명이 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대주재시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당신을 인정치 않고 교만하고 자행 자치하는 인생들을 기필코 꺾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약 4:6; 벰전 5:5).

다니엘이 본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입니다(17절). 세상 종말의 때에 활동할 적그리스도는 참으로 가혹하게 그 시대의 참 성도(교회)를 박해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활개치는 그 때에 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무수히 순교할 터이고, 교회는 환란 중에서 고통당할 것입니다(계 13:1-10). 하지만 그 기간은 결코 길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하여 그 환란의 날들을 감하사(마 24:21-23), 메시아 예수를 통해 적그리스도를 창졸간에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주님께로부터 심판주의 권세를 위임받은 재림의 예수는 최후 심판을 통해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모두 영영한 불못에 던질 것이고(계 19:20), 성도와 교회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계 21:1-4). 그런즉 오늘날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같은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소망 중에 삼가 깨어 그리스도인의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알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단 8:25)

기도 제목 ①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천천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포로생활 중에 있던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의 포로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확인하고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릎쓰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3절). “우리가 범죄하였고”(5,7,8,11,15절),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6,10절), “주께 간구함이 없었다”(13절)라고 구구절절이 지은 죄에 대해 철저히 고백합니다. 지은 죄에 대한 철저한 눈물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니엘은 민족이 당한 70년 포로생활의 고난에 대해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의 공의’라고 인정합니다(7절). 다니엘은 자신을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어쩔수 없는 죄인임을 거듭거듭 고백합니다(14,15절). 이처럼 주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사 6:5),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는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확신하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자신과 자기 동족의 공로나 노력을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곧 주님의 긍휼에 호소합니다. 참된 기도는 바로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17-19절). 다니엘은 ‘주를 위하여’(17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18절), ‘주 자신을 위하여’(19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것을 호소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19절).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시 50:15).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단 9:18)

기도 제목 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②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임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다니엘은 고국 땅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비통한 소식 때문에 모든 낙을 끊고 간절히 세 이레(3주) 동안을 기도했습니다(2,3절). 주님께서는 3주 동안, 영혼을 괴롭게 하며 간절히 매달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12절). 그런 후 다니엘에게 은혜로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고뇌하고 간구하는 다니엘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한 사람’은 바로 성육신 하시기 이전 구약 시대에 나타나신 성자 그리스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위엄차고 영화로운 그리스도 앞에서 도저히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빠져 거의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그리스도께서는 다니엘에게 힘을 더하시어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5-11절).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신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마 1:21). 이처럼 그리스도는 낙심한 영혼, 절망한 죄인을 찾아 오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구원자요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 죄인 된 인간은 스스로는 결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 오시고 위로하실 때에만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새 생명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단 10:11)

기도 제목 ① 눈을 들어 진리이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② 삶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은총의 일꾼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본 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앞 부분(2-35절, 주전 150년간의 역사)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었다면, 뒷부분(36-45절, 역사의 종말)은 신약의 마지막에 관하여 다룹니다. 그러나 각각의 종결의 부분에서 주님의 백성이 큰 환난을 당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결국 앞 부분은 뒷부분인 역사의 종말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반부의 사건은 후반부의 사건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본 장에서 일반 역사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사건이 상세히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예언된 사건들이 역사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국가간의 동맹, 배반, 전쟁 같은 일들은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뜻대로 성취해가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며, 또한 백성들을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세상 권세자들로 인해 믿는 자들이 큰 환란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고 경건한 자를 박해하는 그가 마치 큰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이 도적이 찾아오는 것 같이 갑자기 아무도 알지 못하게 임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멸망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며 박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살후 3:3)

기도 제목 ① 고난과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②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팀들이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인 본 장은 이제까지의 계시에 대한 결론으로, 마지막 때에 관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적그리스도에 의한 대환난에 관한 내용이 더욱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그 구체적인 시기에 관한 물음과 답변을 통해 주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해 줍니다.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환난은 역사 이래 볼 수 없었던 큰 환난이 될 것입니다. 이 환난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 미가엘 천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백성에 대한 핍박은 앞 장에서도 예언 되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큰 환난을 겪고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고난 당하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이미 앞 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종말의 때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가 받는 환난은 참으로 심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든 인간의 운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2절).

마지막 때에 이미 죽어 땅에 묻혀 있던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지만, 반면에 수욕을 입어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부활은 수욕과 부끄러움,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 자신이 그들의 멸망을 위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성도에게 영광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게 하소서. ② 교회 주변 전도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약 성경의 마지막 12권인 소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인 호세아서는 주님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그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불성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부분이고(1-3장),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와 징벌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며(4-10장), 세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장래에 관한 회복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11-14장).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 주님의 메시지를 전한 호세아 선지자가 행실이 나쁜 고멜을 아내로 맞은 것은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부정했던 그녀는 자녀를 낳고도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해 호세아를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부정한 여인 고멜을 다시 데려와 사랑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그분의 신실하심과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요구하신 것은 부정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뻔히 불행해 보이는 결혼 생활을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가정에 대한 주님의 일반적인 계획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호세아의 가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반하는 부정한 아내와의 결혼 생활로 인한 호세아의 아픔과 고뇌를 통해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에서였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고멜과 결혼하고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이룬 삶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기도 제목 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하나 되는 모든 위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지적되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2절). 말씀 가운데 “쟁론하라”는 말씀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정한 고멜이 더 이상 아내가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주님을 떠남으로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멜이 송사의 대상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쟁론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음란한 영적인 간음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까? 한마디로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로서 탐심을 품게 되면, 주님께서 계시 자리를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탐심을 버릴 것을 강조합니다(골 3:5).

이스라엘의 죄의 실상과 그에 따른 징벌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14-23절). 죄악된 백성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약속에서 특별히 주목할 사실은 주님께서 직접 이것을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그들의 실패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구원의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알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유 :21)

기도 제목 ① 회개하여 우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찾아 순종케 하소서. ② 모든 새가족들이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은 무지와 탐심으로 인해 주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좇았지만, 결국 비참한 처지가 되고만 이스라엘의 고통스런 상태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다른 남자를 좇아 갔던 아내를 되찾아 와서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부정한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는 명령은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장은 매우 짧게 구성되어 있지만 구약의 계시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타락의 깊은 수렁에 빠졌다가 노예의 신세까지 전락한 아내를 대가를 치르고 찾아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분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은 죄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 죄는 완전히 제거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처리 과정 없이는 관계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그 모든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보혈의 은총을 믿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엡 2:5)

기도 제목 ① 진심으로 회개하여 바뀌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총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이스라엘의 죄는 근본적으로 주님께 대한 무지의 결과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당신께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미워하는지, 주님의 백성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전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삶은 불의로 가득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보인 반응처럼 죄를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 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다투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서로 시비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주님 대신 좇아간 것이 무엇이든 결코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주님을 버리고 만족을 주지 못할 헛된 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고 멸망의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즐겼다는 데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지도자와 백성들 모두에게 만연되었고 죄에 대해 무감각해졌습니다. 더 이상 회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 보아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마 4:17)

기도 제목 ① 늘 깨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총동원 전도주일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심령에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의 실상과 그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특히 서두부터 심판의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 대상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와 사회적 질서를 책임진 사람들로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인도하여 우상을 멀리하도록 해야 했고, 정치 지도자들은 주님의 법대로 정의를 세워나가야 했습니다. 더욱이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다른 지도자들이 잘못되어갈 때 그것을 지적해 주고 의로운 길을 보여주어야 할 자들로서 그 책임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며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거듭되는 죄는 회개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지속적인 죄로 마음이 흐려지고 둔해짐으로써, 주님께 범죄했을 때 따라오는 징계에 대한 생각들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교만이며 그 교만으로 인하여 망하게 됩니다(5-7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정해진 장소와 방법을 따라 희생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음을 뜻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기도 제목 ① 항상 깨어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주님의 은총으로 전도된 영혼들의 삶을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는 돌아오라는 주님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7-11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까지 깊이 타락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주님께로 돌이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죄의 실상을 깊이 인식한 선지자는 간곡한 어조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어그러진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그분께로 돌이키고 힘써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1-3절). 하지만 백성들은 교만하고 완악해져서 회개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인애와 주님을 아는 지식과 진실함이 없었습니다(6절). 선지자의 권면을 따라 잠시 회개의 열망을 품었을 뿐이지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주님을 아는 것이고, 그 모습은 인애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는 패역과 행악과 피흘림과 행음이 가득했습니다(7-10절).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안심하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되지 못한 종교행위를 통해 스스로 위로받기를 좋아했습니다(6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자신을 나타내심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알려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회개가 없을 뿐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호 6:3)

기도 제목 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②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기도회가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10절). 이 교만은 주님 앞에서 죄악의 근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교만히 행하는 것을 가장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결국 이 교만의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됩니다(호 5:5). 이 교만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얼굴은 뻔뻔하여 죄악을 범하고 회개하지도 않고서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만이 모든 죄악의 근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주님께 불순종함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간은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시며 친히 그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당연히 이런 주님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요 1:11). 자기 백성은 주님이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시 135:4; 렘 2:7; 호 9:3; 신 7:6). 결국 자기 백성은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도 교만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교만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어두움에 싸여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바램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② 위임 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주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홀로 처한 들 나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9절). 들에 사는 들 나귀는 욕정이 강한 짐승입니다. 홀로 처했다는 것은 곧 자기 마음대로 고집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님을 떠나서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의 욕정을 따라 이방 신을 섬기고 범죄하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참 목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목자로 삼는 자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시 23:1).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방 종교와 혼합하여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고집대로 앓수르를 의지하고 앓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주님을 향한 배반의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능력보다는 눈에 보이는 앓수르의 군사력을 의지하였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로 모습을 표현한 것이 '값 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사랑의 대가였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요일 2:16)에 사로잡혀 있다면, 영적인 간음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욕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 13:14)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의 욕과 정을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②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이스라엘을 향하여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하였음을 알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7절).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인하여 여러 번에 걸쳐 징벌을 내리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비웃고 핍박함으로써 주님의 경고를 거부하였습니다(사 10:3). 따라서 그들에게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게도 주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주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의 말씀을 받아 진실하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선포합니다(렘 23:16). 이 거짓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과 이스라엘의 평강을 외치고 있습니다(렘 6:14). 결국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곧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날은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벧후 3:10).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마 25:13)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선교 훈련이 주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의를 심고 공흠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공흠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12절). 의를 심고 공흠을 거두라는 말씀은 직접 그들이 이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의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써 주님의 공흠하심을 입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멸망당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주님의 공흠하심과 의를 입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눅 5:32). 이 회개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묵은 땅과 같이 강박해져서는 안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를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사 55:6). 지금은 구원의 날이며 은혜 받을 날입니다. 이 때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날에, 은혜 받을 날에 원하시는 삶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의 삶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

기도 제목 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사도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 참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4절).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디도를 가리켜 참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동일한 믿음을 따라 구원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벧후 1:1).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에 속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디도를 참 아들이라고 부른 이유는 디도는 사도 바울을 통해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형제(고후 2:13), 동무, 동역자(고후 8:23)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디도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은 복음 증거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 증거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롬 10:15).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복음이 참된 증거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거저 받은 은혜이며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14)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회학교의 학생들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새겨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 지식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는 죄악으로 영생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11,12절). 주님께서는 만민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딤후 2:4). 또한 그들을 위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원을 얻는 자는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베후 3:9).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는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것입니다(롬 3:24).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은혜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법이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항변이나 변명 없이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자가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딤후 3:7)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지식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훌륭한 인생, 훌륭한 삶을 살고자 하면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지혜가 결여된 자입니다(3절). 결국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참 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위대한 삶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주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시 14:1). 우리 삶에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였습니다. 이는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어두움을 비추어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아직도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사단의 세력에 속고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강물에 풍성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엡 2:4)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맡겨진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곁을 떠난 것이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한 잠시 동안의 떠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로 맞아 줄 것을 간곡히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 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15,16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네시모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은 다 용서하고 환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히 3:1).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오네시모는 종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이 주의 일을 함께 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오네시모도 역시 빌레몬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오네시모뿐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 안에서 후사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엡 3:6).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빌 1:7)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세 가족들이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역예배공과

5월 구역 공과 초점

자존심을 버리고
회개하라

자존심을 버리고 회개하라

예수님에 대해 의문을 갖는 세례요한의 모습은 우리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악한 사람임을 고려해 볼 때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요한마저 이런 의문을 가졌다면 누가 신자이고 누가 아닌지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그들은 믿음에 어긋나는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인 됨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말고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비록 힘들고 많은 장애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은 사랑과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즉시 회개하십시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초 점
0505	눅 7:18-28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라
0512	딤후 1:12-17	죄인 괴수의 회개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라
0519	미 6:8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	회개하며 구원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라
0526	눅 19:1-10	삭개오의 승리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즉시 응답하라

1. 구역 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공과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공과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 초 점 |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라

| 찬 송 |

찬송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284장 주 예수 해변서

| 본 문 | 누가복음 7:18-28

☞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니까 하라 하매 ☞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니까 하더이다 하니... ☞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세례요한이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증거 할 사람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옥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질문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세례요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정말로 이상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례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눅 1:15-17

우리들도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 언제 나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의심하는 세례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세례요한의 사역

세례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 빈 들에서 지내면서 심령이 강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눅 1:80). 요한의 사역은 구약과 신약을 통합했으며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했습니다(마 3:2). 그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외치는 자였습니다.

눅 3:3,4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때 세례요한은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마 3:16,17 / (16)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향한 세례요한의 고백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요 1:29,32,34

세례요한의 의심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30)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흥해지고 자신이 감옥에서 쇠해져 갈 때 요한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설교문 참조)

※ 세례요한이 보낸 두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말씀은?(눅 7:21,23)

그리스도는 메시아

예수님은 자신이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이생에서 세례요한에게 세상적인 부를 가져다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불쌍한 죄인들의 영혼을 깨끗케 하시는 메시아였습니다.

사 35:5,6 / 그 때에 소경의 ☐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 하리니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계속 설명합니다.

사 61:1,2

메시아는 구원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 3:16,17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의 기대치 때문에 다시 한 번 그것을 되새겨야 했습니다.

고전 15:58

히 10:38,39

세례요한은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은 것은 자신이 만 들어 낸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며 교만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벧전 1:3,4)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마저 이런 의문을 가졌다면 누가 신자이고 누가 아닌지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그들은 믿음에 어긋나는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생의 자랑에 매였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십시오.

자신을 의지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주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벧후 1:2,3).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소서
2. 자신의 공로를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피 공로만 자랑케 하소서
3.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구역이 되게 하소서

2과 죄인 괴수의 회개

| 초 점 |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라

| 찬 송 |

찬송가 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가 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 본 문 | 디모데전서 1:12-17

¹²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¹⁵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¹⁶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¹⁷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자신을 “궤방자요 꺾박자요 포행자”(13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자신에 대해 이렇게 심하게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변화되기까지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도로 바꾸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행 2:41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정규적인 신학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가난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은 두 사람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강력하고 놀라운 도구로 변화시키셨습니다.

※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바울과 베드로의 모습이 자신에게 있는지 살펴본 뒤 나누어 보세요.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은 최초로 선출된 집사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행 6:8

사람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사람들을 소동시켜서 스데반을 공회에 세웠습니다.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 7:51,52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자존심은 그를 더욱더 호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후 바울은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행 8:3

행 9:1,2

바울의 회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바울에게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 그를 둘러 비추었고 바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 다메섹에서 예수님과 바울의 대화입니다. 성구를 참조하여 채워보세요.

예수님(행 9:4) / _____

바울(행 9:5) / _____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매우 끔찍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삼 일 후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보냈습니다.

행 9:15,16

괴수에서 사도로

예수님은 바울을 극악한 괴수에서 위대한 사도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는 믿음에 관한 한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딤후 1:12,14

다메섹 사건 이 후 그는 전 생애를 통해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극한 핍박과 고통 중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롬 1:16).

딤후 4:5-8

바울은 자신의 신변에 아무리 위험한 일이 생기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믿음의 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직후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딤후 1:15,16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된 사실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딤후 1:17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진실한 회개의 시작은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 중에 과수인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찾아서 다함께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과수! 바로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이 진실로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자신이 죄인 중에 과수임을 깨닫게 하소서
2. 우리 구역원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케 하소서
3. 죄인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3과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 초 점 |

회개하며 구원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라

| 찬 송 |

찬송가 203장 나 행한 것으로

찬송가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 본문 | 미가 6: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만약 겸손한 마음과 신실한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맞아주시겠습니까? 심판의 날, 주님 앞에 홀로 서게 될 그 때에 나의 삶은 그분의 통치를 피해 갈 수 있을까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말하며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선언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말을 얼마나 신뢰하실까요?

※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고백해 보세요.

주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정확무오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거룩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몇몇 사람들을 통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항상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사랑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 다르게 평가하셨습니다.

마 23:23

이들은 은총이 아니라 율법과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구원에 거의 근접했습니다(막 12:34). 그러나 구원에 이를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과 율법, 그리고 모든 전통을 아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벨릭스와 빌라도

당시 정치적인 권력자였던 벨릭스는 시간을 내어서 더 깊은 말씀을 들어려고 했지만 결국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행 24:25).

약 2:19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진리에 대해 들었습니다(요 18:37). 또한 예수님을 조사했지만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행 23:4). 그러나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자신의 명성에 흠이 가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아그립바왕

아그립바왕은 바울이 유대인의 고소로 그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행 26:28,29

그러나 아그립바왕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은총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이해하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은 주님의 무죄를 깨달았습니다.

눅 23:47 /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이었던다 하고.

막 15:39 /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이었던다 하더라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지만 구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그분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는 것 이상입니다.

부자 청년

모든 율법을 잘 지켰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9:16-22).

※ 예수님 말씀에 대한 부자 청년의 반응은?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이상입니다.

가롯 유다와 한 부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는 주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든 설교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은 삼십 때문에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마 26:15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 역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했지만 소유를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행 5:2

가롯 유다와 한 부부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 달렸던 두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죄수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눅 23:39-43

이 강도는 평생 동안 불법을 행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예수님께 은총을 구했고 마침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마 6:8

우리는 어떻게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까? 다음의 성구가 전하는 동일한 단어를 써 보세요.

※ 눅 13:3 ; 마 3:2 ; 행 2:38 ; 행 3:19 □□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불평불만하는 모습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결국 구원받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진실로 회개하십시오!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주장을 철저하게 없애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구원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참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게 하소서
2. 매일 자기를 부인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3.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은총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4과 삭개오의 승리

| 초 점 |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즉시 응답하라

| 찬 송 |

찬송가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찬송가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 본 문 | 누가복음 19:1-10

①예수께서 예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②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③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 배나 갚겠나 이다 ④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⑤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음으로 路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삭개오의 승리는 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시험을 이겼던 경험을 나누어보세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아마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속이고 갈취했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적이었고 나쁜 짓을 일삼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온통 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의 삶은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죄인에게 구원이 임했던 것일까요?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마음의 소원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했습니다.

눅 19:3

그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분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신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했습니다(요 12:13). 삭개오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관심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장애의 극복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 틈에 끼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잘 보이는 곳을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눅 19:4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도 삭개오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했습니다. 그녀를 막는 많은 장애가 있었지만 그녀는 나아갔습니다.

막 5:25-27 / (25)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26)많은 의
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7)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운데 섞여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소경 거지 바디매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실 때 길가에 앉아 있
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막 10:48 /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삭개오, 혈루증을 앓던 여인, 소경 바디매오 앞에는 넘기 힘든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가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이겨
냈고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즉각적인 응답

예수님은 뽕나무 밑을 지나가면서 위를 올려다보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즉시 반응했습니다.

눅 19:5,6 / (5)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_____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
시니 (6) _____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를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그는 즉
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투덜거리거나 불
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삭개오가 그랬듯이 즉시 하나님의 길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거나 반항해서는 안됩니다(히 3:7,8).

죄의 회개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았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눅 19:8 /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의 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한 일이 있으면 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신이 행했던 악한 일을 깨달았고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좇던 불순종의 아들에서 은총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엡 2:2). 이제 회개한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눅 19:9,10

십자가로 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삶 속으로 주님을 초대하고 싶다면 사단의 방해로 극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즉시 반응하면 우리도 바뀌어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후 5:17

행 3:19

요일 1:9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즉시 응답하였던 삭개오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진실로 회개하며 구원의 기쁨에 참여합시다(행 16:31).

| 간절한 기도 |

1.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즉시 응답하게 하소서
2. 나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믿음으로 넘게 하소서
3.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공과

‘남성구역공과’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삭개오의 승리

(눅 19:1-10)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삭개오의 승리는 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아마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속이고 갈취했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적이었고 나쁜 짓을 일삼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온통 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의 모든 삶은 순식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죄인에게 구원이 임했던 것일까요?

마음의 소원

성경은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3절). 그는 자신이 거래 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분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귀신들린 자들과 저는 자,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과 또 그밖에 여러 가지 기적들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신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습

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 이시여”(요 12:13). 삭개오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예수 님에 대한 그의 관심은 진짜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따라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장애의 극복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 틈에 끼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잘 보이는 곳을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 령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앞질러 달려가 예수 님을 보기 위해 뿔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 시게 됨이러라”(4절).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은 “많은 의원 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 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막 5:25-27). 이 여인도 삭개오처 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순간 주님은 그 여인을 치료하셨습니다. 소경 저지 바디매오는 예수님 께서 지나가고 계실 때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이란 말을 듣고 소리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가 더욱 심 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막 10:48)! 바디매오는 삭개오가 그랬듯이 예수님께 가기 위해 모든 어 려움을 이겨냈고 주님은 그의 눈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즉각적인 응답

예수님은 뽕나무 밑을 지나가면서 위를 올려다보고 삭개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5절).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즉시 반응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6절).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자 조금 당황하고 부끄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히브리서 3:7,8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그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늘 머뭇거리고 반항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를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투덜거리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명령대로 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창 22:3).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자를 바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응답하는 것을 늦추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삭개오가 그랬듯이 즉시 하나님의 길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회개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

이 있으면 사 배나 값겠나이다”(8절). 영안이 열리자 삭개오는 자신이 행했던 악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 죄를 고백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기 전까지 그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엡 2:2). 예수님께 나온 후 그는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9,10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의 삶 속으로 주님을 초대하고 싶다면 여러분 역시 사단의 방해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즉시 반응하면 여러분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삭개오는 죄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행 3:19). 아멘. 요한일서 1:9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잘 들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2006년 5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매일묵상 : 장 훈(1-7일), 최중철(8-15일), 이경준(16-23일), 윤수일(24-31일) 목사

구역예배공과 : 양재웅 목사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